이주민 스님 호소 "체류 보증 도움을…"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이주민법당 운영 스님 간담회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마주협은 4월 8일 서울 수국사서 이주민법당 운영 외국인 스님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재 이주민 법당 운영 스님들의 체류기간이 1년에 불과합니다. 비자 발급을 위해 1년에 한 번씩 재입국을 해야 하는데 많은 비용이 듭니다. 조계종 소속 외국인 스님들의 경우 종단 보증으로 2년 체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사찰과 종단이 국제포교 차원에서 함께 체류 보증을 해줬으면 합니다."

이주민 불자들의 의지처인 외국인 스님들로부터 어려움을 듣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상임대표 호산, 이하 마주협)는 4월 8일 서울 수국사 교육관에서 '이주민 법당 외국인 스님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마주협 신임 상임대표로 선출된 호산 스님(수국사 주지)이 이주민 법당 활성화와 국제포교 진흥을 위해 마련했다. 호산 스님은 향후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해 먼저 이주민 법당을 운영하는 스님들로부터 현황을 듣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간담회에는 스리랑카, 네팔,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등 7개국 16명의 스님들과 진오 스님(구미 꿈을이루는사람들), 도제 스님(광주 아시아밝음공동체), 덕신 스님(대륜사), 성원 스님(금강사) 등 한국에서 이주민 포교를 펼치는 스님들이 참석했다.

신분 보증 대한 종단 · 사찰 도움 절실

이주민 법당을 운영하는 스님들은 다양한 고충을 토로했다. 특히 신분 보증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부평 미얀마 불교전법선원 우드라 스님은 "1년에 약 150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예전에는 비자 연장이 2년가량 됐지만 현재 보증이 없어져 1년으로 축소됐다. 조계종 소속이 아니더라도 초청사찰이 있으면 2년가량 가능하다. 이주민 법당과 결연사찰을 맺어 신분보증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베트남 원오도량 팃트엉 탄 스님은 국적 취득 과정에서의 도움도 요청했다. 팃트엉 탄 스님은 "베트남 불자들을 위해 활동하다보니 국적 취득까지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귀화 과정에서 한국 사찰이나 스님의 추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어학 · 불교학 교육의 장 요청도

이밖에 보다 원할한 포교활동을 위해 한국어 교육과 한국불교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으면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몽골 간단사 바트보양 스님은 "스님들이 가장 한국어가 능통해야 하지만 어학당에 다니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동국대의 경우 입학이 가능하지만 중앙승가대는 입학이 막혀있다. 한국 대학의 문호를 넓히는 등 교육지원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구미 스리랑카 꿈이사 산뜨시리 스님은 "어학 능력 향상을 원하지만 법당과 쉼터 업무 등으로 인해 시간을 내기 힘들다. 한국불자들과 함께 소통하며 자연스럽게 어학 능력을 키우고 싶다"고 바람을 전했다.

마주협, 종단 기구 필요성 제기

이밖에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광주 아시아밝음공동체 도제 스님은 "마주협이 예전에는 조계종 사회부 산하 기구로 있으며 예산 지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현재 독립된 NGO로 나오며 상주 인원도 두기 힘든 상황에 처해있다"며 "국제 포교 차원에서 마주협을 종단 내부로 가져오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구미 꿈을이루는사람들 대표 진오 스님은 "종단 차원에서 작은 도움으로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 먼저 포교 차원에서 한국불교에 관심이 많고 노력하려는 해외 스님들을 선별해 지원해 나갔으면 한다. 국제포교사회 등을 활용해 찾아가는 한글법당을 여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사회부장 덕조 스님은 "종단 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다"며 "지속적으로 소통의 자리를 갖고 국제포교 차원에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마주협은 9월 22일 이주민 연합축제인 '이주민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하기로 했다.

조계종 종평위 항의에 앰비션뮤직 '사과'

김효은 씨 신곡 논란에 입장

3월 30일 음원사이트에 공개된 바 있는 힙합가수 김효은 씨의 신곡 '머니로드'가 불교폄훼와 여성혐오 등 부적절한 가사로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소속사 앰비션뮤직이 사과입장을 불교계에 전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항의공문을 전달한지 4일만이다.

김효은 씨의 소속사 앰비션뮤직은 4월 5일 조계종 항의공문에 대한 회신을 통해 "문제가 된 가사는 저희 소속 뮤지션이 아닌 해당 곡의 참여 뮤지션 '브래디스트릿'의 가사"라고 밝혔다.

이어 "브래디스트릿에게 종교 및 사회현상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실수임을 확인했다. 소속 뮤지션 실수가 아닐지라도 저희 회사를 통해 발매된 음원으로 발생한 문제에 소속사 및 임직원 일동도 큰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앰비션뮤직은 이어 "따라서 2019년 4월 1일부로 해당 음원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했다"며 "이와 관련해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 이번 일로 심려 끼쳐드린 점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윤호섭 기자

오대산 '유네스코 복합 유산' 추진 본격화

월정사 · 한국불교학회 27일 세미나… 지정 행보 시작

불교신앙과 시대인식
원융 · 화합 측면 조명

강원도 오대산을 '유네스코 복합유산'으로 지정 추진하기 위한 행보가 본격화 된다.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주지 정념)와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성철)은 오는 4월 27일 월정사 성보박물관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의 문화적 완성과 오대산의 유네스코 복합유산 추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불교학회 춘계특별학술대회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오대산 일원의 불교 신앙과 유학자의 인식, 월정사의 위상 등이 다각도로 논의될 예정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자현 스님(중앙승가대)의 '신라오대산의 문수신앙과 오만진신신앙 검토' △권혁진(강원한문고전연구소)의 '유학자의 오대산 인식-유산기와 한시를 중심으로' △이영경(동국대 경주캠)의 '오대산 월정사 보전지의 유산 가치' △고영섭(동국대)의 '세조 상원사 중창과 거둥 관련 유적 검토' △이원석(동국대)의 '한암 스님의 불출동구와 현실관' △문광 스님(동국대)의 '탄허 선사의 간산(艮山) 사상과 오대산 주석의 의미' 등이 발표된다.

토론자로는 김은영(동국대) · 박재금(前 이화여대) · 최송현(부산대) · 김영일(동국대) · 윤창화(민족사) · 김영진(동국대 경주캠) 등이 참여한다.

월정사는 "오대산은 원융과 회통을 지향했던 한암과 탄허 스님께서 주석하셨던 곳이며, 불교뿐만 아니라 무교와 유교의 성소가 어우러진 화합과 조화의 성산(聖山)"이라며 "이번 학술대회가 '원융과 화합'이라는 오대산 문화의 보전과 계승 및 확산을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포교사단 정상화… 방창덕 단장 선출

4월 11일 보궐선거서 선출
연내 사단장 선거제도 개혁
단복 개선, 소통의 장도 추진


방창덕 신임단장(사진 오른쪽)이 포교사단 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당선증을 받고 있다.

사상 초유의 집행부 일괄사태를 겪었던 조계종 포교사단이 새 수장 선출을 통한 정상화에 나섰다. 포교사단은 4월 11일 서울 장충동 우리함께빌딩에 위치한 포교사단 사무실에서 제10대 단장 보궐선거를 개최했다.

선거권자 37명 중 26명이 참석한 이날 보궐선거에서는 단독 입후보한 방창덕 대구지역단장이 찬성 22표로 단장에 선출됐다. 방 단장은 12월 31일까지 단장 잔여 임기를 수행한다.

포교사단은 최근 사단장 선출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의 갈등으로 윤기중 전 포교사단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일괄 사퇴하는 혼란을 겪었다. 이후 3월 10일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방창덕 대구지역단장이 직무대행으로 선출돼 수습을 맡아왔다.

이번 단장 선출을 통해 포교사단은 기존 사업계획을 그대로 이어가는 한편, 갈등이 촉발된 사단장 선거제도를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방창덕 단장은 "임기 내 목표를 신바람 나는 포교사 활동에 두고 가장 먼저 소통과 참여에 주안점을 두겠다"며 "지역단 활동에도 본단 임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단의 목소리 또한 본단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방 단장은 이어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관리, 진행 중인 정관 및 제규정 보완작업, 단복 개선 등 미진한 계획 사업의 추진 방침도 밝혔다.

이어 진행된 4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정청현, 김위영, 김영석, 여갑동 포교사가 부단장으로 인준됐으며, 논산 호국연무사에서의 제17회 팔재계 수계법회 개최 등이 논의됐다.

포교사단은 이날 4차 운영위원회서 포교사단복 2차 품평회를 가진데 이어 4월 15일 포교원 1차 전시를 열었다. 포교사단은 이후 의견을 수렴해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불교NGO 지원사업 선정

광주불교환경연대 등 4곳

조계종 사회부가 불교시민사회단체 교류 강화를 위해 추진한 '불교시민사회단체 사업공모'에서 총 4곳의 NGO단체 사업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조계종 사회부는 앞서 접수된 총 17개 단체의 사업 심사를 거쳐 △청소년과 함께 굴리는 녹색페달(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너나들이(광주전남 인드라망공동체) △우리만의 수학여행(사단법인 아시아밝음공동체) △결혼이주여성 취업 · 창업을 위한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 취득과정(사단법인 착한벗들) 등 4곳을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조계종은 각 사업마다 700~800만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단체는 오는 10월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11월 14일까지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윤호섭 기자

